"명상법과 간화선 융합 발전해야"

피터 스킬링 교수, 성철스님 기념 포럼서 기조강연

"불교는 세월이 지나며 다양한 명상 수행법이 발달해왔습니다. 수행법의 다양화는 불교를 넘어 종교 전반의 공통점입니다. 특정 명상법만이 최고라는 자세가 올바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남방 불교 전문가인 피터 스킬링(63) 프랑스 극동학원 교수는 11월 29일 동국대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불교의 명상-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킬링 교수는 기조발제 '불교의 명상 누가 독점하려 하는가'를 통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불교수행의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어떤 학파·시대·나라·선사도 불교의 명상을 독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스크리트어나 빠알리어로 된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도 다양한 종류의 명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킬링 교수는 "불교의 목표인 열반으로 가는 길은 많다"며 "부처님은 가르치는 상대방의 능력이나 경향, 척도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명상법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스킬링 교수는 "불교교학은 고립돼 전개된 것이 아니라 브라마니즘 등 다른 종교 체계와 상호작용, 경쟁 속에서 발전 한 것"이라며 "명상 또한 특정 수행법의 독점이 아닌 다양한 수행법의 경쟁과 융합과정에서 발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킬링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남방 위빠사나 수행법이 남방불교의 전유물로 평가되고 이 수행법이 간화선보다 우위에 있다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했다.

스킬링 교수는 "위빠사나 수행법의 호흡 수행법인 수식관은 남방불교의 대표적 논서인 〈청정도론〉에도 나오지만 북방불교의 〈유가사지론〉에도 설명된다"며 "수행법은 우리가 명확하게 주변을 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스킬링 교수는 "하나의 명상법만 최고라고 하기보다 다양한 명상을 두루 해보며 융합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 유행은 쉬운데서 시작

학술포럼 이후 스킬링 교수는 간화선 세계화에 대해서는 영어와 현지어로 지도하는 여건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크다고 말했다.

스킬링 교수는 "명상센터 등을 세우고 외국어로 지도하는 스님들을 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빠사나가 단계별 검증을 통해 수행자의 단계를 진단할 수 있는 만큼 간화선도 다양한 지도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킬링 교수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의 계기인 성철 스님에 대해서는 선교겸수의 롤모델이라고 평했다.

스킬링 교수는 "100일 법문 영역본을 통해 연기법 등 불교교리에 대한 설명을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며 "선사임에도 불교의 역사와 교리에 정통한 점을 학자로서 본받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남방불교 전문가 피터 스킬링 교수는 명상 수행 전통의 발전을 위해 남방북교와 북방불교 수행법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흡수행 · 간화선 서로 인정 필요
'남방불교가 초기불교 계승' 허구
'괴로움 소멸법' 다양하게 발달
간화선은 동아시아 수행법

간화선, 선종 넘은 동아시아 명상 전통

2부에서 주제발제한 케이트 크로스비 런던대 교수도 "그동안 정통성 논란이 많았던 남방불교가 초기불교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평가는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허구"라고 지적했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스위스 로잔대 명예교수는 "초기경전에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언급하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에 관해서는 서로 달라 명확하지 않다"며 다양한 수행법의 발달이 불교전반에서 진행됐음을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는 "간화선은 선종만의 산물이 아닌 동아시아 불교 수행의 산물"이라고 간화선의 의미를 확대했다.

버스웰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간화선이 선불교가 쇠퇴하자 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대 선종에서 고안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간화선은 동아시아 불교의 전반적인 수행풍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과감한 비판 없으면 발전 없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서

"불교학 연구는 현재 신앙과 학문연구의 혼동된 상태입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과거와 현재 문제에 대해 과감히 비판할 때 불교학이 발전하고 국가학문인 한국학으로서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학으로서의 불교학'이란 주제로 한국불교와 동·서양 종교, 철학, 문학, 역사, 정치, 경제학과의 학제적 접근 모색이 이뤄졌다.

이날 '근대한국불교사학의 전통과 한국학'을 발표한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는 "근대 불교학은 훈고학적 자구의 주석을 위주로 전승됐을 뿐 문헌비판과 새로운 이해체계에 대한 근대학문으로는 확대발전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그 원인으로 문제의식 약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다.

최병헌 명예교수는 "1980년대 이후 한국불교 연구는 불교학, 역사학 외에 철학과 종교학 등 분야로 확대됐고 불교미술사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며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평했다. 하지만 최 명예교수는 "한국학에서 국문학 등에 비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여전히 변방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명예교수는 한국불교 연구상황에 대해 "비판의식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논문이 문제의식이 불분명하며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또 불교신앙과 학문연구를 혼동하는 경향, 고승에 대한 선양사업과 학문연구의 미분화 등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불교학 분야에서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불교 사상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역사학 분야에서 불교철학의 이해가 필요한 반면 불교학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소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의 '불교문화연구원 50년과 한국불교'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첫날인 11월 30일에는 △베르나르 포르 콜럼비아대 교수의 '서구불교학에서 본 한국불교' △판카즈 모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인도불교에서 본 한국불교' △리시롱 북경대 교수의 '중국불교에서 본 한국불교' △시모다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의 '일본불교에서 본 한국불교'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한국철학에서 본 한국불교' △이동철 용인대 교수의 '동양철학에서 본 한국불교' △김종욱 동국대 교수의 '서양철학에서 본 한국불교' 등 논문이 발표됐다.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이튿날인 12월1일에는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국학에서 본 한국불교' 발표를 시작으로 △허남린 브리티쉬 콜롬비아대 교수의 '종교학에서 본 한국불교' △김용태 동국대 교수의 '역사학에서 본 한국불교' △김상일 동국대 교수의 '문학에서 본 한국불교' △안토네타 부르노 로마대 교수의 '민속학에서 본 한국불교' △하와이대 교수 성원 스님의 '정치학에서 본 한국불교'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경제학에서 본 한국불교' 등 논문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전법상에 반야 스님, 함현준 법사

불광연구원, 11월 13일 전법학 학술논문상 발표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수여하는 제1회 전법학 학술논문상 전법상 부문에 청암사승가대 반야 스님과 육군 제3군단 함현준 법사가 선정됐다.

불광연구원은 11월 13일 공모된 6편의 제출논문을 심사한 결과 청암사승가대학 학인 반야 스님의 '초기불교의 전법교화 전략과 현대적 응용'과 육군 제3군단 함현준 군종법사의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을 통한 군포교의 발전방안 연구'를 제1회 전법학학술상 전법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상금은 각각 300만원이며 대상인 바라밀상은 선정되지 않았다.

반야 스님의 논문은 전법교화에 대한 초기불교 내용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한국불교의 포교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포교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야 스님

함현준 법사

함현준 법사의 논문은 '이미지'라는 현대적인 트렌드를 군포교와 접목시켜 '이미지 메이킹'의 관점에서 군포교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함 법사는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분석을 실시해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학술상 시상식은 12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02)941-3537

노덕현 기자

종교와문화연구소, 12월 8일 심포지엄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는 과학사상연구회와 공동으로 12월 8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과학, 종교, 그리고 합리성의 안팎'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과학의 탈신화와 종교의 탈과학화' △김윤성 한신대 교수 '기이한 믿음의 욕망구조: 혈액형성격유형론, 신종종말론, 과학적창조설의 경우' △김희수 한국사회문제연구소 소장 '한국개신교의 문자적 성서 해석과 적용의 비합리성' 등이 발표된다. (031)379-0455

노덕현 기자

태고종립 동방불교대, 30주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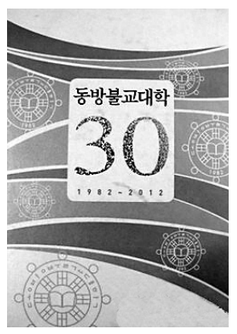
1500명 졸업생 배출, 〈동방 30년사〉 발간 봉정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영우)이 개교 30주년을 맞아 11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비전30, 2012동방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동방불교대학 이사장)과 중앙종회의장 도산 스님, 호법원장 운곡 스님 등 태고종 대표스님들과 전국교구종무원장, 각 단체장과 동방불교대학 졸업생 등이 대거 동참했다.

1982년 10월 서울시 중곡동에 2년제 '불교포교사전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동방불교대학은 출·재가불자를 아우르는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왔다.

1983년에 現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한 이래 총 149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불교학과 단일학과로 시작한 이후 1990년에는 영산재 저변 확대와 계승을 목적으로 '범패과'가, 1991년에는 단청화맥 계승을 위해 '불교미술과'가 신설됐다. 2004년에는 '승가과', 2010년에는 '역경학과'를 개설해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동방30년사〉 표지 사진

동방불교대학 학장 영우 스님은 "교사(校舍) 등 기반시설 확충, 학사관리 보완, 교육재원 확보 등이 시급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에서 "종립학교 30년 동안 힘으로 태고의 종풍이 사해(四海)에 떨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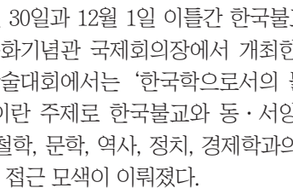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방불교대학의 30년 역사를 담은 〈동방 30년사〉 발간 및 봉정식이 개최됐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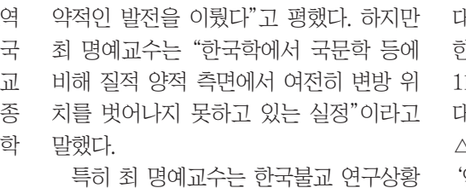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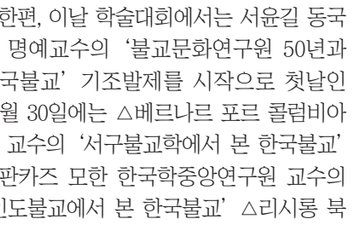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바른자세헬스케어진흥원
Strainght Posture Health Care P.A